

『素問·五藏生成』에 대한 研究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 白根基

內容摘要

本論文對《素問·五藏生成》進行研究的，《素問·五藏生成》是素問的第10編。編名是五藏生成，所以主要內容是應該關於五藏之生和成。可是實在上大部分的內容都是關於五味五色和五藏的關系而色脈的診斷。

爲了研究這些原因，進行五藏生成和色脈診斷關系。記述順序是人體和五藏之生成，地氣和脈之發現，天氣和色之發現，色脈和診斷的關系。從以上的研究，得出了以下結論。

- 1 天氣和地氣結合才誕生人。所以五藏是天氣和地氣結合才生成。人體和五藏依賴天地之氣味繼續被滋養。因此可以說五藏之外的發現是可能分開天氣和地氣。
- 2 在《五藏生成》關於生成內容很少，大部分的內容是關於五味和五色的關系而且色診和脈診。脈從地氣出來，再說五味養成五藏之血氣，這些血氣發現在血之府。色是天氣出來，再說五氣養成五藏，五藏之氣發現于皮膚就是色。進行色診的部分是顏色和眼睛，脈診是進行觀察氣口和人迎。
- 3 最近在韓醫學，代表診斷用語是望聞問切。可是在黃帝內經，診斷核心是色診和脈診。《黃帝內經》把察色按脈重視，特別強調的是‘色脈合參’，而且判斷生死豫候的時候，在色診和脈診中，更重視色診。
- 4 神明是從心臟出來的，這統治五藏六府和五藏之精并且發現于脈和色。所以診斷的時候，核心是色和脈，這是心臟的發現。
- 5 在人體，性情之變化相應天氣而發現于顏色，飲食相應地味而發現于體格發達。所以可能說爲了身體健康，氣功是統治天氣和神的方法，而且這樣方法可能統治心理的變化。還有對個人最合適的飲食習慣，這些方法可能管理皮肉脈筋骨。

關鍵詞：五藏生成，天氣，地氣，察色按脈。

차 례

I. 서론

II. 본론 및 고찰

1. 人體와 五藏의 生成

- (1) 《黃帝內經》에서 본 사람의 生成
- (2) 五藏의 生成

2. 脈의 발현

- (1) 五味와 脈의 관계
- (2) 五味와 五藏·五體·五榮의 관계

3. 色의 발현

- (1) 天氣와 色의 관계
- (2) 神과 色의 관계
- (3) 五藏·五體와 色의 관계

4. 五藏의 色脈과 診斷의 관계

- (1) 脈診
- (2) 望診에서 形象
- (3) 聞診
- (4) 色診

5. 色脈合診에 대한 고찰

- (1) 四診 중 色脈診이 중요하다
- (2) 色脈合診
- (3) 心藏과 色脈의 관계

6. 色診만으로 生死의 예후를 알 수 있다

III. 결 론

(참고문헌)

I. 緒論

〈五藏生成〉은 《黃帝內經素問》의 제 10편이다. 篇名에 대하여 최근 주해서에서는 “人是 天地의 氣로 生하고 四時의 法으로 成한다.”라는 이치를 논술하여 이름을 ‘五藏生成’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¹⁾ 따라서 당연히 본 문의 주 내용은 五藏의 生成에 관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분석하면 五藏의 生과 成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고, 五味·五色과 五藏의 관계와 色診과 脈診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논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추적하면서 본 편의 주 내용은 五藏의 生成은 天氣와 地氣가 交合하여 이루어지

1) 교감적역황제내경소문, p.69

고, 五藏의 生理와 病理의 발현도 天氣와 地氣로 구성되는데, 天과 地를 대표하여 각각 나타나는 色診과 脈診이 診斷法의 핵심임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론에 대하여 필자는 논문의 전개 순서를 人體와 五藏의 生成, 地氣와 脈의 發現, 天氣와 色의 發現, 五藏의 色脈과 診斷의 관계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한다.

II. 본론 및 고찰

1. 人體와 五藏의 生成

(1) 《黃帝內經》에서 본 사람의 생성

논제인 五藏生成과 色診 그리고 脈診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람의 생성과 오장의 생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인체와 五藏은 어떻게 형성될까? 《靈樞·邪客》²⁾에서 人體의 形象은 天地의 形象과 相應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小宇宙인 人體가 大宇宙의 法則대로 구성되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 《素問·天元紀大論》³⁾에서 陰陽不測者인 神이 하늘에서 風熱濕燥寒으로 變할 때 땅에서는 木火土金水로 化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형체가 없는 氣가 될 때 땅에서는 물체를 이루는 形을 이루니, 形과 氣가 서로 감응하여 萬物을 化生한다고 하였다.

또 《素問·六節藏象論》⁴⁾에서는 天地가 氣를 습하여 萬物이 形體를 가지게 되고, 그 형체가 변하기 때문에 萬物의 명칭이 정해졌다고 하였다.

여기서 萬物은 天地의 形氣가 감응하여 이루어지는데 氣의 배합에 따라 각기 다른 형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素問·寶命全形論》에서 사람은 땅에서 나고 수명은 하늘에 달렸으니 天地의 氣가 합해져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사람이 四時陰陽의 변화 법칙에 적응해야 함은 天地는 곧 父母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 이 말은 사람은 하늘에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며 땅에서 四時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성장해간다는 뜻이다.

또 같은 편에서 하늘은 덮어씌우고 땅은 실어서 萬物이 다 갖추어졌을 때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사람은 天地의 氣에 의해 태어나고[生] 사계절이 변화하는 법칙에 따라 성장한다[成]고 하였다.⁶⁾ 또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⁷⁾에서 봄은 生하고 여름은 長하고 가을은 收하며 겨울은 藏하는 것이 氣의 법도인데 사람도 이것에 상응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람은 天地의 氣가 습하여 태어

2) 《精校黃帝內經靈樞·邪客》“天圓地方，人頭圓足方，以應之。…，此人與天地相應者也。”

3) 《精校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神在天爲風，在地爲木，在天爲熱，在地爲火，在天爲濕，在地爲土，在天爲燥，在地爲金，在天爲寒，在地爲水，故在天爲氣，在地成形，形氣相感，而化生萬物矣。”

4) 《類經·氣味類·天食人以五氣地食人以五味》“因氣之合而有萬物之形 因形之變而有萬物之名”
《黃帝素問直解》“氣合而有形 有形之體 本於無形之氣也。”

5) 《今釋黃帝內經素問》p.262 “夫人生於地，懸命於天，天地合氣，命之曰人，人能應四時者，天地爲之父母。”

6) 《黃帝內經注補注素問》p. 570 “天覆地載，萬物悉備，莫貴於人，人以天地之氣生，四時之法成。”

7) 《精校黃帝內經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春生，夏長，秋收，冬藏，是氣之常也，人亦應之。”

나서 四時가 生, 長, 收, 藏하는 법칙에 상응하여 성장함을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靈樞·天年》⁸⁾에서,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어머니를 기초로 삼고, 아버지를 난간으로 삼으며, 神을 잃으면 죽고, 神을 얻으면 산다. 그리고 血氣가 이미 和하고 榮衛가 이미 通하며, 五藏이 이미 이루어지면 神氣가心に 머무르게 되고 魂魄이 다 갖추어지니 이에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람은 天에 속하는 父의 精과 地에 속하는 母의 血을 기틀로 하여 태어나서 神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天地父母의 氣가 합하여 形氣를 갖추고 태어나서 神을 얻어서 天地의 四時陰陽 법칙에 相應하여 성장하는 萬物 중에서 가장 귀한 存在임을 알 수 있다.

(2) 五藏의 生成

사람은 天地가 氣를 합하여 태어나서 四時陰陽의 법도에 상응하여 生, 長, 收, 藏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다. 인체의 주인을 五藏이라고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五藏의 생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素問·陰陽應象大論》⁹⁾에서 “東方生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自然의 方位에서 天氣가 생겨나는 것을 논한 것이다. 또 “風生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天氣에서 地의 五行이 생김을 뜻한다. 또 “木生酸, 酸生肝.”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地의 五行에서 五味가 생기고, 五味가 五藏을 발생함을 설명한 것이다. 또 “肝生筋”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내부에 있는 五藏이 인체 외부로 연계되는 五體를 생기게 한다는 뜻이다.

五藏이 生하는 과정을 다시 요약해 보면 자연계의 五方位에서 天의 五氣(風寒暑濕燥)가 생기고, 五氣에서 地의 五行이 생기며, 五行에서 五味가 생기고, 五味에서 五藏이 생기며, 五藏에서 皮, 肉, 脈, 筋, 骨인 五體가 생긴다고 하여 生하는 과정이 일관됨을 알 수 있다.

《素問·陰陽離合論》에서 “天爲陽, 地爲陰”이라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陽爲氣, 陰爲味.”이라 하였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하늘은 五氣로 사람을 먹여 살리고 땅은 五味로 사람을 먹여 살린다¹⁰⁾고 하여 天은 五氣, 地는 五味로 사람을 길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상은 成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편에서 제목을 五藏의 生成이라고 붙여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生과 成은 선후로 분리해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本篇에서는 제목에 걸맞게 生과 成을 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五藏과 相合하는 五體, 其榮 그리고 其主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¹¹⁾. 그 이유는 五藏生成에 대하여 前篇에서 이

8) 《編輯黃帝內經 靈樞·天年》“黃帝問於岐伯曰：願聞人之始生，何氣築爲基，何立而爲楯，何失而死，何得而生。岐伯曰：以母爲基，以父爲楯，失神者死，得神者生也。黃帝曰：何者爲神。岐伯曰：血氣已和，營衛已通，五藏已成，神氣舍心，魂魄畢具，乃成爲人。”

9) 《今釋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岐伯對曰，東方生風，風生木，木生酸，酸生肝，肝生筋……南方生熱，熱生火，火生苦，苦生心，心生血……中央生濕，濕生土，土生甘，甘生脾，脾生肉……西方生燥，燥生金，金生辛，辛生肺，肺生皮毛……北方生寒，寒生水，水生鹹，鹹生腎，腎生骨髓……”

10) 《今釋黃帝內經素問·六節藏象論》“天食人以五氣，地食人以五味。”

11) 《編輯黃帝內經 素問·五藏生成》“心之合脈也，其榮色也，其主腎也。肺之合皮也，其榮毛也，其主心也。肝之合筋也，其榮爪也，其主肺也。脾之合肉也，其榮脣也，其主肝也。腎之合骨也，其榮髮也，其主脾也。”

미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黃帝內經》에서는 앞 편 내용은 뒷 편 내용과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앞 편에서 다른 내용의 일부를 다음 편에서 상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第 1篇인 《素問·上古天真論》의 “不時御神” 구절을 第 2篇인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四時 기후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정신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술하였고¹²⁾, 《素問·四氣調神大論》의 “生氣不竭”이라는 구절을 第 3篇인 《素問·生氣通天論》에서 ‘인체의 陽氣인 生氣는 天地 陰陽의 변화와 相通하므로 이에 순응하면 건강하고 거역하면 질병에 걸린다’라는 원리를 설명하였다고¹³⁾ 볼 수 있다. 이렇게 앞 편 내용은 대체로 뒷 편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있다.

《素問·五藏生成》도 前篇인 《素問·六節藏象論》의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의 문장을 참고해야 본 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天地의 形氣가 상합하여 생성되어 天地의 氣味를 먹고 살아가므로 天의 五氣¹⁴⁾와 地의 五味가 五藏을 生하고 成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각 五藏은 體外의 五合·五榮과 상응하며, 五行歸類에 따라 자연계와 인체 각 기관과 相應하여 완전한 유기체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상 五藏生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편에서는 생성에 관한 내용보다 五藏과 五味·五色의 관계, 그리고 診斷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싣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脈의 발현

脈은 구조적으로 氣血이 순환하는 通路로서 즉 血脈을 말하는데, 기능적으로는 脈象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에 대해서 《靈樞·經脈》¹⁵⁾에서 脈은 血氣를 운명하는데 飲食物이 胃에 들어가면 經脈이 통하게 되고 血氣가 이에 순행한다고 하여 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木生酸”은 地의 五行이 五味를 生한다는 뜻이고, “地食人以五味”는 사람이 땅에서 나는 食物을 (五味) 먹고 산다는 뜻이다. 따라서 五味는 地氣에서 나온다. 이 때 五味는 인체에서 脈과 五體·五榮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五味와 脈의 관계

五味와 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脈狀은 地의 五味가 인체에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이 食物을 먹어서 藏府와 전신 조직에 공급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靈樞·玉板》¹⁶⁾에서 사람은 食物에서 氣를 받는데 食物은 胃로 들어가며, 胃는 水

12) 《今釋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 p.59

13) 《黃帝內經注補素問·生氣通天論》 p.47

14) 《한의학대사전》 ①喜, 怒, 憂, 思, 恐 등 5가지 정성 상태를 말한다. ②누린내〔臊氣〕, 단내〔焦氣〕, 비린내〔腥氣〕, 썩은내〔腐氣〕, 향기로운 냄새〔香氣〕 등 5가지 냄새를 말한다. ③五運의 氣, 金木水火土를 말한다. ④얼굴에 나타나는 5가지 병적 색깔. 靑白赤黃黑色 등을 말한다. ⑤風寒暑濕燥 등 5가지 기후를 말한다. ⑥土氣를 말한다. 토가 오행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다섯 번째에 속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⑦ 5가지 맛을 말하기도 한다.

15) 《黃帝內經靈樞 1卷·經脈》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

16) 《黃帝內經靈樞 3卷·玉板》 “人之所受氣者, 穀也. 穀之所注者, 胃也. 胃者, 水穀氣血之海也. 海之所行雲氣者, 天下也. 胃之所出氣血者, 經隧也. 經隧者, 五藏六府之大絡也.”

穀氣血의 바다다. 그리고 胃가 氣血을 보내는 곳은 經隧다. 經隧는 五藏六府의 大絡이라고 하였고, 《靈樞·五味》¹⁷⁾에서는 胃는 五藏六府의 바다인데 水穀이 胃로 들어오면 五藏六府가 모두 胃에서 氣를 받는다. 이 때 五味는 각기 좋아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酸味는 肝, 苦味는 心, 甘味는 脾, 辛味는 肺, 鹹味는 腎으로 먼저 간다. 穀氣와 津液이 운행하면 榮衛가 통하고 이에 糟粕이 생겨 배출된다고 하였다.

또 《素問·五藏別論》¹⁸⁾에서는 胃는 음식물의 정미로운 氣가 모이는 바다면서 六府의 큰 근원인데, 음식물의 五味가 입으로 들어가면 胃에 저장되었다가 五藏의 氣를 길러준다. 氣口脈도 手太陰肺經에 속하니 이 때문에 五藏六府의 氣味는 모두 胃에서 나와 그 氣의 변화가 氣口脈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땅에서 생산된 水穀이 胃로 들어가면 五味 중 정미로운 성분은 각기 좋아하는 五藏으로 들어가서 五藏의 氣를 기른다. 여기서 생성된 氣血津液이 經隧(脈)로 보내져서 순행하면 手太陰肺經에 속하는 氣口脈에서 氣血의 변화가 드러나고, 남은 찌꺼기는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地의 五味가 사람의 五藏之氣를 길러서 脈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五味와 五藏·五體·五榮의 관계

앞서 말했듯이 五味는 五藏에 들어가서 脈으로 발현될 뿐만 아니라 五體와 五榮을 길러준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 “地食人以五味”라 하였고,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地制形”라고 하여 地의 五味가 사람을 길러줄 때 體形으로 발현함을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本 篇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五藏이 각각 좋아하는 五味가 있다고 하였으며¹⁹⁾, 心, 肺, 肝, 脾, 腎 五藏은 脉, 皮, 筋, 肉, 骨 五體와 相合하고, 色, 毛, 爪, 脣, 髮 五榮과 상응한다고 하였다²⁰⁾. 따라서 地의 五味와 脈狀, 五體 그리고 五榮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五味를 지나치게 먹으면 相剋받는 藏器의 五體와 五榮이 손상을 받게 된다.²¹⁾ 《素問·生氣通天論》²²⁾에서도 五藏의 陰氣가 생성되는 근본은 五味에 달려있으며 陰氣가 저장되는 五藏이

17) 《精校黃帝內經靈樞·五味》“黃帝曰：願聞穀氣有五味，其入五藏，分別奈何。伯高曰：胃者，五藏六府之海也，水穀皆入於胃，五藏六府，皆稟氣於胃。五味各走其所喜，穀味酸，先走肝，穀味苦，先走心，穀味甘，先走脾，穀味辛，先走肺，穀味鹹，先走腎。穀氣津液已行，營衛大通，乃化糟粕，以次傳下。”

18) 《精校黃帝內經素問·五藏別論》“帝曰 氣口何以獨爲五藏主。歧伯曰 胃者水穀之海，六府之大源也。五味入口，藏於胃以養五藏氣，氣口亦太陰也。是以五藏六府之氣味，皆出於胃，變見於氣口。”

19) 《編輯黃帝內經 素問·五藏生成》“故心欲苦，肺欲辛，肝欲酸，脾欲甘，腎欲鹹，此五味之所合也。”

20) 《編輯黃帝內經 素問·五藏生成》“心之合脉也，其榮色也，其主腎也。肺之合皮也，其榮毛也，其主心也。肝之合筋也，其榮爪也，其主肺也。脾之合肉也，其榮脣也，其主肝也。腎之合骨也，其榮髮也，其主脾也。”

21) 《編輯黃帝內經 素問·五藏生成》“是故多食鹹，則脉凝泣而變色；多食苦，則皮槁而毛拔；多食辛，則筋急而爪枯；多食酸，則肉胔膈而脣揭；多食甘，則骨痛而髮落，此五味之所傷也。”

22)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陰之所生，本在五味，陰之五宮，傷在五味，是故味過於酸，肝氣以津，脾氣乃絕。味過於鹹，大骨氣勞，短肌，心氣抑。味過於甘，心氣喘滿，色黑腎氣不

손상을 받는 것도 五味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五味를 섭취하여 五藏으로 들어가면 形인 五體와 五榮을 길러주는데, 지나치게 多食하면 相剋받는 기관들이 손상을 받으므로 體質에[藏府大小] 따라 五味의 섭취를 조절할 할 필요가 있다.

3. 色의 발현

色은 빛의 일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선을 프리즘을 통하여 분광하면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으로 분리되는데, 이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이며 이것이 色의 근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色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빛과 대상 물체와 관찰자의 눈을 통하여 결정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物體의 色은 물체가 太陽光이나 전등, 촛불 등 빛을 받아서 빛이 투과, 흡수, 반사하여 나타나는 색채를 말한다.

(1) 天氣와 色의 관계

色의 발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앞에서 설명하였다. 결국 色은 빛의 일부므로 여기서는 色이 天氣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본다.

《素問·五常政大論》²³⁾에서 天은 色을 제어한다고 하였고, 《素問·五運行大論》²⁴⁾에서는 天의 28宿 중 일정한 자리에서 天氣가 五色으로 발현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靈樞·脈度》²⁵⁾에서는 肝氣는 눈에 통하므로 눈이 조화로우면 눈이 五色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萬物은 天地의 氣가 합해서 이루어지지만 形과 色을 갖은 萬物의 속성 중에서 色은 주로 天氣에 의해서 발현되며, 정상적인 눈의 작용을 통하여 감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神과 色의 관계

色은 또 神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素問·天元紀大論》²⁶⁾과 《素問·陰陽應象大論》²⁷⁾에서 자연계에는 四時와 五行이 있으므로 春, 夏, 秋, 冬에 따라 生, 長, 收, 藏하며, 木, 火, 土, 金, 水에 따라 風, 暑, 濕, 燥, 寒이 생긴다. 사람에게는 五藏이 있어서 五氣를 化生하므로써 五志인 喜, 怒, 悲, 憂, 恐이 생긴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類經·陰陽類·陰陽應象》²⁸⁾에서는 五氣란 五藏의 氣다. 五氣에서 五志가 생긴다고 하여 五藏의 氣가 五志로 나타남을

衡. 味過於苦, 脾氣不濡, 胃氣乃厚. 味過於辛, 筋脉沮弛, 精神乃央. 是故謹和五味, 骨正筋柔, 氣血以流, 腠理以密. 如是, 則骨氣以精, 謹道如法, 長有天命.”

23) 《精校黃帝內經素問·五常政大論》“天制色, 地制形, 五類衰盛, 各隨其氣之所宜也.”

24) 《精校黃帝內經素問·五運行大論》“臣覽太始天元冊文, 丹天之氣, 經于牛女戊分, 齡天之氣, 經于心尾己分, 蒼天之氣, 經于危室柳鬼, 素天之氣, 經于亢氐昴畢, 玄天之氣, 經于張翼婁胃. 所謂戊己分者, 奎壁角軫, 則天地之門戶也.”

25) 《精校黃帝內經靈樞·脈度》“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26) 《精校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黃帝問曰 天有五行, 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

27)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

28) 《類經·陰陽類·陰陽應象》“五氣者 五藏之氣也. 由五氣以生於五志”

알 수 있다.

《素問·三部九候論》에 나온 “五藏已敗, 其色必天, 天必死矣.”라는 구절에 대해 王水은 色은 神의 표현이고 藏은 神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色으로 나타난 이상 증후로 藏의 손상[敗]을 알 수 있다²⁹⁾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화가 나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하고, 기쁨이 넘치면 얼굴에 화색이 돌며, 겁에 질리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감정 변화는 곧 얼굴의 色으로 나타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五藏에서 化生되는 五氣는 사람의 喜, 怒, 憂, 思, 恐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곧 色으로 발현된다.

따라서 天氣[호흡]와 神[性情]은 단전 호흡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素問·經脈別論》³⁰⁾에서는 모든 사람의 驚, 恐, 患, 勞, 動靜 등은 다 脈에 변동을 일으킨다고 하여 性情의 변화도 脈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天地自然의 모든 사물과 사람은 陰陽多少의 편차가 있지만 天地陰陽의 氣를 모두 갖추고 때문에 性情에 따라 色과 脈이 모두 변화한다. 여기서는 色의 변화가 더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五藏·五體와 色의 관계

이미 설명한 것처럼 色은 天氣와 神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五藏과 五體에 상응하는 色에 대하여 알아본다.

《素問·藏氣法時論》³¹⁾에서는 肝의 색은 푸르고, 心의 색은 붉으며, 肺의 색은 희고, 脾의 색은 누르며, 腎의 색은 검다고 하였고, 《靈樞·五色》에서는 “以五色命藏, 青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라고 하여 五藏과 五色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 《素問·脈要精微論》³²⁾에서는 精明에 나타나는 五色은 五藏 기운의 표현이라고 하였고, 本篇³³⁾에서는 五藏의 氣가 色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五色의 상태로 五藏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死候와 生候 및 五藏의 生氣 등을 파악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五藏과 五色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色이란 내부 藏器가 잔직하고 있는 氣血 중 주로 五藏之氣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본 편³⁴⁾에서 五體와 五色이 상응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논술했듯이 본래 五體는 五味의 영향을 더 받는다. 그러나 인체는 天地의 交合體이므로 性情도 음식물[五味]의 영향

29) 《黃帝內經注補注素問 上卷》“天謂死生異常之候也。色者神之旗, 藏者神之舍, 故神去則藏敗, 藏敗則色見異常之候也。”

30) 《黃帝內經注補注素問 上卷·經脈別論》“黃帝問曰 人之居處動靜勇怯, 脈亦爲之變乎? 岐伯對曰 凡人之驚恐患勞動靜, 皆爲變也。”

31) 《今釋黃帝內經素問·藏氣法時論》“肝色青……心色赤……肺色白……脾色黃……腎色黑”

32) 《今釋黃帝內經素問·脈要精微論》“夫精明五色者, 氣之華也。”

33) 《編輯黃帝內經·五藏生成》“五藏之氣, 故色見青如草茲者死, 黃如枳實者死, 黑如衄者死, 赤如衄血者死, 白如枯骨者死, 此五色之見死也。青如翠羽者生, 赤如雞冠者生, 黃如蟹腹者生, 白如豕膏者生, 黑如烏羽者生, 此五色之見生也。生於心, 如以縞裹朱; 生於肺, 如以縞裹紅; 生於肝, 如以縞裹紺; 生於脾, 如以縞裹牝糞; 生於腎, 如以縞裹紫, 此五藏所生之外榮也。”

34) 《編輯黃帝內經·五藏生成》“故白當皮, 赤當脈, 青當筋, 黃當肉, 黑當骨。”

을 받고, 五體도 呼吸[五氣]의 영향을 받는다. 天地自然에서는 獨陰 獨陽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4. 五藏의 色脈과 診斷의 關係

지금까지 天氣와 地氣의 交感으로 五藏이 生成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五藏의 상태가 體外로 發現하는 色과 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黃帝內經》에서 여러 가지 診斷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귀납해보면 결국 望, 聞, 問, 切이며, 특히 望診과 脈診에 대해 상세하다. 실제로 四診은 어느 하나 빠수 없으며 종합하여 잘 운용해야 診斷에 착오가 없다고 할 수 있다.³⁵⁾

일반적으로 望診은 반드시 환자의 精神, 形態, 五官, 齒舌, 皮膚色, 毛髮, 唾液, 大小便을 관찰하며, 聞診은 呼吸, 氣息, 냄새 등을 관찰하며, 問診은 居處, 職業, 生活狀態, 環境, 發病 經過 등을 물어보고, 切診은 脈狀, 臍結, 皮膚, 胸腹, 手足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³⁶⁾

본 편에서는 四診 중 問診을 제외한 脈診, 形象[比類取象], 聞診, 色診을 설명하고 있는데,³⁷⁾ 이 중에서 특히 神明에 通할 수 있는 色脈診을 강조하고 있다³⁸⁾.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色과 脈을合一하면 診斷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 상술한다.

(1) 脈診

본 편에 “夫脈之大小滑澀浮沈, 可以指別”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脈診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맥박의 大小·滑澀·浮沈을 손가락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素問·脈要精微論》의 여러 편에서 상술하고 있다.

脈診이란 맥박 변화를 통하여 인체 陰陽의 성쇠와 邪氣와 精氣의 진퇴를 알아내는 것인데, 五藏 六府의 氣는 모두 血脈을 통과하며 血脈은 전신으로 퍼져 氣血을 옮긴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면 바로 氣血 順行에 영향을 미쳐서 독특한 脈狀이 나타난다.

진맥하는 부위는 寸口가 대표다. 寸口는 손목 撓骨動脈으로서 太淵穴이며 길이는 1촌 9푼이다. 다른 말로 脈口라고 하거나 氣口라고도 하는데 手太陰肺經에서 맥이 뛰는 곳이다. 肺는 氣를 주관하고 百脈을 조회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 진찰한다.

그리고 寸口는 脾胃의 氣가 도는 곳이기도 하다. 脾胃는 五藏六府의 氣血이 모이는 바다므로 전신의 장부 經脈의 상황이 모두 寸口脈에 드러나며 五藏의 氣가 정상에서 벗어나면 氣口에 변화가 나타난다.³⁹⁾ 이처럼 足太陰脾經은 음식물의 精氣를 퍼뜨려서 오장을 기르고, 手太陰肺經은 百脈을 조회하여 寸口로 순행한다. 그래서 氣口를 太陰이라고 한다.

또 다른 진맥부위로서 人迎이 있다. 人迎은 頸動脈에서 박동을 감지하는 부분이며 足陽明胃經이

35) 《黃帝內經概論》p.311

36) 《黃帝內經概論》p.295

37) 《編輯黃帝內經·五藏生成》“夫脈之大小滑澀浮沈, 可以指別; 五藏之象, 可以類推; 五藏相音, 可以意識; 五色微診, 可以目察. 能合脈色, 可以萬全.”

38) 《黃帝內經靈樞 1卷·邪氣藏府病形》“見其色, 知其病, 命曰明. 按其脈, 知其病, 命曰神.”

39) 《精校黃帝內經素問·五藏別論》“帝曰 氣口何以獨爲五藏主. 歧伯曰 胃者水穀之海, 六府之大源也.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藏氣,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藏六府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

순행한다. 胃는 水穀의 바다로서 脾胃의 氣는 반드시 人迎을 통과한다. 그리고 人迎은 목구멍 곁에 있기 때문에 肺氣도 지나간다. 그래서 전신의 藏府 經脈의 상황이 모두 人迎脈에 드러난다.40)

이상 부위의 맥상 변화는 내외의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진단한다. 四時의 氣와 결합하여 五藏脈의 일정한 변화를 근거로 藏氣와 四時陰陽의 逆順을 알 수 있다. 봄은 따듯하고 여름은 더우며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 맥상도 변하기 때문이다.41)

내경에서는 봄에는 弦하고 여름에는 鉤(洪이라고도 한다)하고 가을에는 毛(浮이라고도 한다)하고 겨울에는 營(石이라고도 한다)해야 肝, 心, 肺, 腎이 사계절에 각각 상응하는 脈象으로 간주하는데, 만약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病脈이다.

또 脈象을 진찰할 때에는 胃氣가 있는지 없는지 진찰해야 한다. 胃氣가 있으면 맥상은 虛實이 적당하고 박자가 일정하며 부드럽고 완만하다. 앞서 제시한 四時脈도 모두 胃氣가 근본으로서 四時五藏脈이 모두 조용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弦, 鉤, 毛, 石이 약간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胃氣가 없어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감이 없고 弦, 鉤, 毛, 石이 두드러지면 病脈이다. 이러한 脈象을 眞藏脈이라고 한다.42) 인체는 胃氣가 근본인데, 환자한테 眞藏脈이 나타나면 胃氣가 쇠약하고 고갈된 상태로 죽을 증상이다.43) 따라서 平脈, 病脈, 眞藏脈은 胃氣의 有無와 多少로 구별하며 이것이 診脈의 중요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맥상은 질병의 발생과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맥상이 다르면 병변도 다르다. 病脈은 환자의 기혈 상태 그리고 邪氣와 正氣의 관계를 나타낸다. 맥상은 종류가 복잡하지만44) 크게 <內經>에서는 急緩大小滑澁이 대표다.

(2) 望診에서 形象

望診은 환자의 形態와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본 편에 “五藏之象45), 可以類46)推”라는 구절이 나

40) 《精校黃帝內經靈樞·營氣》“營氣之道，內穀爲寶，穀入於胃，乃傳之肺，流溢於中，布散於外，精傳者，行於經隧，常營無已”

41) 《精校黃帝內經素問·脉要精微論》“四變之動，脉與之上下，以春應中規，夏應中矩，秋應中衡，冬應中權……春日浮，如魚之遊在波；夏日在膚，泛泛乎萬物有餘；秋日下膚，蟄蟲將去；冬日在骨，蟄蟲周密，君子居室。”

42) 《精校黃帝內經素問·平人氣象論》“春胃微弦曰平，弦多胃少曰肝病，但弦无胃曰死”

《精校黃帝內經素問·玉機眞藏論》“眞肝脉至，中外急，如循刀刃責然，如按琴瑟弦，色青白不澤，毛折乃死。眞心脉至，堅而搏，如循薏苡子累累然，色赤黑不澤，毛折乃死。眞肺脉至，大而虛，如以毛羽中人膚，色白赤不澤，毛折乃死。眞腎脉至，搏而絕，如指彈石辟辟然，色黑黃不澤，毛折乃死。眞脾脉至，弱而乍數乍疎，色黃青不澤，毛折乃死。”

43) 《精校黃帝內經素問·玉機眞藏論》“五藏者，皆稟氣於胃，胃者五藏之本也，藏氣者，不能自致於手太陰，必因於胃氣，乃至於手太陰也，故五藏各以其時自爲，而至於手太陰也。故邪氣勝者，精氣衰也，故病甚者，胃氣不能與之俱至於手太陰，故眞藏之氣獨見，獨見者，病勝藏也，故曰死。”

44) 《黃帝內經概論》p. 303 “內經”에 나타난 맥상은 浮, 扎, 洪, 滑, 數, 促, 弦, 緊, 沈, 伏, 革, 實, 微, 澁, 細, 軟, 弱, 虛, 散, 緩, 遲, 結, 代, 動, 長, 短, 濡, 牢, 大, 小, 急, 堅, 盛, 躁, 疾, 搏, 鉤, 毛, 石, 營, 喘 등이 있다. (傅維康, 中國醫學史)

45) 《類經·藏象類·藏象》“象則形象也，藏居於內 形見於外 故曰 藏象”

46) 類: 무리, 일족, 比肩을 뜻한다. 여기서는 五行의 物類, 類型을 뜻한다고 본다. [필자주]

《素問·金匱眞言論》 東方青色，入通於肝，開竅於目……其味酸，其類草木……南方赤色，……其

온다. 이 구절은 五藏의 形象을 物類로써 유추하여 진단에 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靈樞·本藏》47)에서는 皮膚의 色과 腠理의 상태와 그 外候로 藏府의 大小, 高低, 剛柔, 正偏을 예측할 수 있고, 또 《靈樞·師傳》48)에서 肝은 눈으로, 心은 검상돌기로서, 脾는 입술과 혀로, 肺는 어깨로, 腎은 귀로 상태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胃는 뼈대 목 가슴으로, 大腸은 코의 길이로, 小腸은 人中과 입술의 두께로, 膽은 눈 밑의 眼胞로, 膀胱은 콧구멍으로, 三焦는 鼻柱骨의 융기로 각각 六府의 상태를 豫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체 內部에 있는 藏府의 상태는 人體의 외부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形象이며 이를 관찰하면 藏府의 疾病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診斷法은 처음 환자를 진찰할 때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지만 藥物과 鍼灸 등 치료를 실행한 후 질병의 변화와 환자의 생사 예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외부로 드러난 形象이 빠른 시간에 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聞診

또 본 편에 “五藏相音, 可以意識”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뜻은 환자의 소리를 듣고 어느 五藏에 상응하는 소리인지 마치 소리굽쇠의 共鳴 현상처럼 의사가 마음[意]으로써 환자의 불편한 곳을 판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聞診에 대한 진단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聞診은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正氣 상태와 病邪의 강약을 진단한다. 목소리 변화는 언어 呼吸, 咳嗽, 嘔逆, 嘔吐, 呻吟 등으로 나타나는데, 소리의 고저와 강약, 그리고 완급과 거칠고 미세함 등 각종 변화로 寒熱虛實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강하고 거칠면 대부분 實證과 熱證이며, 미쳐서 내뱉는 소리, 헛소리, 급박하고 거친 숨소리 등이 해당한다.⁴⁹⁾ 반면 목소리가 약하고 가늘면 대부분 虛證과 寒證이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미약한 숨소리가 해당한다. 한편 氣가 치성하고 습기가 많아서 배가 습기에 막히면 목소리가 무겁고 탁하며 맑지 못하여 빈 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린다. 만약 氣가 약하고 腎이 쇠약하면 음성이 낮고 작으며 말이 끊어진다. 그리고 정신이 착란하면 말에 논리가 없다. 또 환자가 갑자기 목이 쉬거나 딸꾹질을 그치지 않으면 병세가 아주 심하다.⁵⁰⁾

이밖에 聞診은 뱃속에서 나는 소리도 포함하며, 현대에는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도 포함했다.

(4) 色診

본 편에 “五色微診, 可以目察”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五色의 미묘한 변화를 의사가 눈으로 관찰하여 질병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望診 중 色診에 대한 구절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靈樞·五色》등 여러 편에 상세히 나온다.

類火……中央黃色……其類土……西方白色……其類金……北方黑色……其類水……

《素問·五常政大論》岐伯曰 六氣五類, 有相勝制也, 同者盛之, 異者衰之, 此天地之道, 生化之常也……五類衰盛, 各隨其氣之所宜也.

47) 《精校黃帝內經靈樞·本藏》p.213~214

48) 《精校黃帝內經靈樞·師傳》p.165

49) 《精校黃帝內經素問·脉要精微論》“五藏者, 中之守也. 中盛藏滿, 氣勝傷恐者, 聲如從室中言, 是中氣之濕也. 言而微, 終日乃復言者, 此奪氣也. 衣被不斂, 言語善惡, 不避親疎者, 此神明之亂也.”

50) 《精校黃帝內經素問·寶命全形論》“絃絕者, 其音嘶敗……病深者, 其聲噦.”

그런데 색깔을 관찰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神이다. 神色은 藏府와 氣血 그리고 精氣의 성쇠가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다. 氣血에 변화가 생기면 色이 상응하는데 氣血이 왕성하면 色에 神이 있으며, 밝고 광택이 난다. 반대로 氣血이 쇠약하면 神이 없고 色이 좋지 않으며 마르고 시든다.

疾病은 다양하게 변하므로 환자가 드러내는 顔色도 다르다. 이것을 靑, 赤, 黃, 白, 黑 五色으로 구분하여 표준을 삼는다. 五色은 오장 상태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顔色으로 나타나는데, 빛나고 밝으며 윤택한 기운을 함축하면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오장의 정기가 충실한 상태로서 정상이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神色이 밝고 윤택하면 藏器가 그다지 쇠약하지 않은 상태로서 잘 치료할 수 있다.⁵¹⁾ 반대로 색깔이 어둡고 윤택하지 못하여 생기가 없으면 앓는 기간과 무관하게 위태하다.⁵²⁾

이처럼 神과 色은 뗄 수 없는 관계로서 色이 윤택하면 神이 있고 色이 좋지 않고 마르면 神이 없다. 神이 있으면 예후가 양호하고 神이 없으면 예후가 나쁘다.

또 눈 색깔도 顔色과 같이 참고하여 진찰한다. 顔色이 노랗게 나타나면 눈 色이 어둡든 잘 낮지만 안색이 노랗지 않으면 난치다. 왜냐하면 노란색은 脾胃의 色으로서 胃氣가 있음을 나타내지만 노란색이 없으면 胃氣가 衰竭되어 잘 낮지 않기 때문이다.⁵³⁾

또 색을 관찰할 때 經絡에 주의하기도 한다. 經絡은 안으로 藏府에 속하고 겉으로 체표에 이어난다. 經脈은 깊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絡脈은 얇아서 잘 관찰된다. 그래서 藏府와 氣血의 질병은 絡脈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며, 絡脈에 나타나는 色의 변화는 비록 일부라고 해도 전신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손에 있는 魚際는 絡脈으로 혈기가 많이 지나간다. 그래서 색깔 변화가 다른 곳에 비해 잘 드러난다. 이곳은 비록 手太陰肺經이 지나가는 곳이지만 肺도 胃氣를 받아서 지나가므로 魚際에서 胃氣를 진찰할 수 있다.

또 絡脈은 체표를 순행하므로 외부의 기후 변화에 쉽게 반응하여 色이 변한다. 기후가 추우면 絡에 있는 피가 정체되어 검푸르고, 기후가 뜨거우면 絡脈에 血이 잘 흘러서 色이 붉다.

5. 色脈合診에 대한 고찰

본 편에서 “能合脈色，可以萬全”이라 하여 色과 脈을 결합하면 진단과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天地合氣로 생성된 五藏의 상태는 주로 色과 脈으로 발현하므로 色脈合診이 진단의 핵심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1) 四診 중 色脈診이 중요하다.

사람은 天地의 氣가 교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五藏에도 天地의 氣가 모두 內在되어 있고, 끊임없이 天의 五氣와 地의 五味를 呼吸出納하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입으로 穀食(五味)을 섭취

51) 《編輯黃帝內經·五藏生成》“靑如翠羽者生，赤如雞冠者生，黃如蟹腹者生，白如豕膏者生，黑如烏羽者生，此五色之見生也。”

52) 《精校黃帝內經素問·五藏生成》“五藏之氣，故色見靑如草莖者死，黃如枳實者死，黑如梔者死，赤如衄血者死，白如枯骨者死，此五色之見死也。”

53) 《編輯黃帝內經·五藏生成》“凡相五色之奇脈。面黃目靑，面黃目赤，面黃目白，面黃目黑者，皆不死也。面靑目赤，面赤目白，面靑目黑，面黑目白，面赤目靑，皆死也。”

취하고, 코로 大氣(五氣)를 호흡하면 中焦에서 氣血이 化生하여 五藏을 길러주고 經脈을 통하여 전신 조직을 자양한다.

本篇⁵⁴⁾에서는 色과 味가 五藏에 상응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처음 구절은 “色味當五藏”이라고 하여 天地人의 구성 즉 五色(天), 五味(地), 五藏(人)의 순서로 설명하였고, 그 다음 구절부터는 “白當肺辛”이라고 하여 天人地의 구성 즉 白色(天), 肺(人), 辛味(地)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天地가 사람을 낳고, 사람은 天地間에서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 五味는 腸胃로 들어가서 氣血을 만들어 經脈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결국 맥상으로 주로 나타난다.

色과 脈은 모두 藏府氣血이 드러나는 象인데 이 중에서 내부의 血之府로 나타나는 것을 脈이라고 하고,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色이다. 이것을 陰陽으로 나누면 脈은 陰에 속하고 色은 陽에 속한다.

이미 五藏의 生成에서 논한 것처럼 五藏은 天氣와 地氣 즉 氣味の 교합으로 생성되므로 五藏의 발현은 天과 地로 나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 때 五藏의 色이 피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天氣가 주관하고, 五藏의 脈이 피부 안에서 운행하는 것은 地氣가 주관한다. 즉 色은 氣에 관련되고, 脈은 味에 귀결된다.

따라서 診斷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五藏의 발현상인 天의 色(五色은 五藏의 氣의 발현상이다)과 地의 脈(胃氣를 근본으로 한다)을 파악해야함을 알 수 있다.

(2) 色脈合診

질병의 발생에 대하여 《素問·生氣通天論》⁵⁵⁾에서는 春夏秋冬의 사계절의 邪氣인 風, 暑, 濕, 寒이 번갈아 五藏을 손상시키고, 五藏의 陰氣가 생성되는 것은 근본이 五味에 달려있으며 陰氣를 저장하는 五藏이 손상을 받는 것도 五味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질병은 크게 天의 五氣가 五藏을 손상시키는 것과 地의 五味가 五藏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⁵⁶⁾에서는 진찰을 잘하는 사람은 察色按脈을 하여 먼저 陰證과 陽證을 구별하고, 五色의 淸濁을 자세히 살펴 병든 五藏을 안다고 하였고, 《素問·移精變氣論》⁵⁷⁾에서는 치료의 중요한 관건은 色脈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역시 色脈 관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靈樞·五閱五使》⁵⁸⁾에서는 脈은 氣口에서 나타나고, 色은 明堂에서 보인다고 하여 色과 脈을 진찰하는 부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본 편⁵⁹⁾에 “赤脈之至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것은 五色과 五脈이 상응한 五藏 병증

54) 《編輯黃帝內經·五藏生成》“色味當五藏, 白當肺辛, 赤當心苦, 青當肝酸, 黃當脾甘, 黑當腎鹹. 故白當皮, 赤當脈, 青當筋, 黃當肉, 黑當骨.”

55)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是以春傷於風, 邪氣留連, 乃爲洞泄, 夏傷於暑, 秋爲痲癘, 秋傷於濕, 上逆而欬, 發爲痿厥, 冬傷於寒, 春必溫病. 四時之氣, 更傷五藏. 陰之所生, 本在五味, 陰之五宮, 傷在五味, 是故味過於酸, 肝氣以津, 脾氣乃絕. 味過於鹹, 大骨氣勞, 短肌, 心氣抑. 味過於甘, 心氣喘滿, 色黑腎氣不衡, 味過於苦, 脾氣不濡, 胃氣乃厚. 味過於辛, 筋脈沮弛, 精神乃央. 是故謹和五味, 骨正筋柔, 氣血以流, 腠理以密, 如是, 則骨氣以精, 謹道如法, 長有天命.”

56) 《編輯黃帝內經·陰陽應象大論》“善診者, 察色按脈, 先別陰陽, 審淸濁, 而知部分”

57) 《編輯黃帝內經·移精變氣論》“治之要極, 無失色脈”

58) 《精校黃帝內經靈樞·五閱五使》“脈出於氣口, 色見於明堂”

에 대한 설명으로서, 診斷할 때 色脈合診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즉 “赤脈”이란 심장과 관련이 있는 赤色과 鉤脈을 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素問·移精變氣論》⁶⁰⁾에서 色의 변화는 사계절의 脈에 상응한다고 하였고, 또 《靈樞·邪氣藏府病形》⁶¹⁾에서는 顏色이 靑, 赤, 黃, 白, 黑 五色에 상응해서 弦, 鉤, 代, 毛, 石 五脈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 때 顏色에 상응하여 相生하는 脈이 나타나면 병이 낫고, 相剋하는 脈이 나타나면 죽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五藏에서 생긴 疾病과 변화의 표현은 五色과 五脈의 상응 관계를 확정한 후에 비로소 질병을 감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色과 脈을 합일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후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른 한편 色脈診을 天地日月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이것에 대하여 《素問·移精變氣論》⁶²⁾에서는 色과 脈에 통달하면 神明에 통하게 되며, 色은 해에 상응하고 脈은 달에 상응한다고 하였다. 《靈樞·陰陽繫日月》⁶³⁾에서 天은 陽이고 地는 陰이며, 日은 陽이고 月은 陰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상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靈樞·邪氣藏府病形》⁶⁴⁾에서 환자의 顏色을 보고 病情을 아는 것을 明이라고 하고, 환자의 脈을 짚어보고 病情을 아는 것을 神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色은 日(氣)에 상응하고, 脈은 月(血)에 상응한다. 따라서 天度の 日月 運行처럼 人體는 色脈 즉 氣血이 조화롭게 운행되어야 無病함을 알 수 있으며, 질병을 진찰할 때 色脈의 이치를 알아야 神明에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色과 脈을 合一하면 診斷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疾病의 輕重과 生死에 대한 예후를 판단할 수 있다.

(3) 心藏과 色脈의 관계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몸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色과 脈이며,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色脈合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보았다. 보편적으로 生死의 기준은 腦死보다 心藏이 멎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色과 脈은 心藏이 주로 주관한다. 여기서는 진단의 핵심이 되는 色脈과 心藏의 관계에 대하여 논한다.

본 편⁶⁵⁾의 문장 첫머리에서 心의 숨은 脈이고 드러난 상태는 色이라고 했다. 또 《素問·解精微論》⁶⁶⁾에서 心은 五藏의 精을 총괄하며, 目은 心의 竅이고 華色은 榮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素

59) 《編輯黃帝內經·五藏生成》“赤脉之至也，喘而堅，診曰有積氣在中，時害於食，名曰心痺，得之外疾，思慮而心虛，故邪從之。白脉之至也……靑脉之至也……黃脉之至也……黑脉之至也……”

60) 《精校黃帝內經素問·移精變氣論》“夫色之變化，以應四時之脉”

61) 《精校黃帝內經靈樞·邪氣藏府病形》“色靑者，其脈弦也。赤者，其脈鉤也。黃者，其脈代也。白者，其脈毛。黑者，其脈石。見其色而不得其脈，反得其相勝之脈，則死矣。得其相生之脈，其病已矣。黃帝問於岐伯曰：五藏之所生變化之病形，何如。岐伯答曰：先定其五色五脈之應，其病乃可別也。”

62) 《精校黃帝內經素問·移精變氣論》“理色脉而通神明……色以應日，脉以應月”

63) 《精校黃帝內經靈樞·陰陽繫日月》“天爲陽，地爲陰，日爲陽，月爲陰，其合之於人。”

64) 《精校黃帝內經靈樞·邪氣藏府病形》“見其色，知其病，命曰明。按其脈，知其病，命曰神。”

65) 《編輯黃帝內經·五藏生成》“心之合脈也，其榮色也，其主腎也。”

66) 《精校黃帝內經素問·解精微論》“夫心者，五藏之專精也，目者，其竅也，華色者，其榮也”

問·靈蘭秘典論》⁶⁷⁾에서는 心藏은 君主之官으로 神明이 나오는 곳이며, 十二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心藏은 色과 脈의 변화 상태를 주관하고, 五藏의 精을 총괄하며, 인체의 생명력이 나오고, 모든 藏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찰하여 病情과 生死의 예후를 판단할 때 神明이 나오고 藏府를 총괄하는 心藏의 발현상인 色과 脈을 살피는 것은 진단의 핵심이 된다.

6. 色診만으로 生死의 예후를 알 수 있다.

本篇⁶⁸⁾에서 面色과 目色の 상태에 따른 色診만으로 生死 예후를 설명하였는데, 面色이 黃色일 때는 살고, 面色이 黃色이 아닐 때는 죽는다고 하였다. 어떠한 근거에서 얼굴과 눈의 색으로 生死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미 앞서 色은 天氣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논하였다. 그런데 《素問·寶命全形論》⁶⁹⁾에서 사람은 땅에서 나고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람의 壽命은 天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자의 生死 예후를 살필 때는 色診과 脈診 중에서 色診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靈樞·五色》⁷⁰⁾에서 얼굴의 일정한 부위에 五色이 나타나는데 五色의 浮沈, 澤天, 散搏, 上下를 잘 관찰하면 病邪의 淺深, 豫後, 遠近, 病處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皮膚의 五色을 관찰할 때는 얼굴에서 관찰하는 것이 보통이며 얼굴 중에서도 明堂인 코를 위주로 살핀다고 하여 五色으로 질병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五色은 얼굴에서 관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素問·解精微論》⁷¹⁾에서 心은 五藏의 精을 총괄하며, 目은 心의 竅라고 하였고, 《素問·脉要精微論》⁷²⁾에서는 精明(눈)에 나타나는 五色은 五藏 기운의 표현이라고 하여 눈에서도 五色을 관찰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色診으로 환자의 生死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때 色診 방법은 面色과 目色の 상응 상태를 살피고 특히 面色을 통하여 胃氣의 有無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面은 胃가 주관하는데 胃氣가 있으면 面色이 黃色으로 나타난다. 만약 胃氣가 끊어지면 脈으로는 眞藏脈이 나오고, 面色은 黃色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때는 死症이다.

III. 결 론

67) 《精校黃帝內經素問·靈蘭秘典論》“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凡此十二官者, 不得相失也. 故主明則下安, 以此養生則壽, 歿世不殆, 以爲天下則大昌. 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形乃大傷, 以此養生則殃, 以爲天下者, 其宗大危, 戒之戒之.”

68) 凡相五色之奇脉 面黃目青, 面黃目赤, 面黃目白, 面黃目黑者, 皆不死也. 面青目赤, 面赤目白, 面青目黑, 面黑目白, 面赤目青, 皆死也.

69) 《精校黃帝內經素問·寶命全形論》“夫人人生於地, 懸命於天”

70) 《精校黃帝內經靈樞·五色》p.227

71) 《精校黃帝內經素問·解精微論》“夫心者, 五藏之專精也, 目者, 其竅也.”

72) 《精校黃帝內經素問·脉要精微論》“夫精明五色者, 氣之華也.”

《素問·五藏生成》편에 대한 내용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사람은 天地의 氣가 습하여 이루어지므로 五藏도 天地의 氣가 교합하여 생기며, 인체와 五藏은 天地의 氣味로써 끊임없이 자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五藏의 外的 발현도 天氣와 地氣의 요소로 구분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五藏生成〉에서는 生成에 관한 내용보다 五藏과 五味·五色の 관계와 色診과 脈診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술하고 있다. 이 때 脈은 地氣인 五味가 五藏의 血氣를 길러서 주로 血之府로 나타나는 것이고, 色은 天氣인 五氣가 五藏을 길러서 주로 五藏之氣가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色診은 주로 얼굴과 눈의 색으로 파악하고, 脈診은 주로 氣口人迎에서 파악한다.
3. 후세 진단의 대표 용어로는 望, 聞, 問, 切 四診이 있지만 이 편에서 고찰하였듯이 《黃帝內經》의 진단 핵심은 色診과 脈診이므로 '察色按脈'을 중시하였다. 특히 '色脈合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生死 예후를 판단할 때 色診과 脈診 중에서 天氣가 주관하는 色診을 더 중시하고 있다.
4. 心藏은 神明이 나오고 五藏六府와 五藏의 精을 총괄하며 脈과 色을 주관한다. 따라서 환자를 진찰하여 病情과 生死의 예후를 판단할 때 心藏의 발현상인 色脈을 살피는 것은 진단의 핵심이 된다.
5.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인체에서 天氣에 相應하는 性情의 변화는 얼굴의 色으로 나타나며, 地味에 상응하는 飲食은 體形 발달로 나타난다. 따라서 養生을 위해서는 天氣와 神을 조절할 수 있는 丹田呼吸 같은 방법을 통하여 喜怒哀樂의 性情을 다스리고, 體質에 맞는 飲食을 섭취하여 皮, 肉, 脈, 筋, 骨을 관리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중국, 하남과학기술출판사, 1982
권건혁, 編輯黃帝內經,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0
金達鎬, 李鐘馨, 黃帝內經注解補注素問, 서울, 의성당, 2001
裴秉哲, 今釋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5
裴秉哲,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95
李慶雨, 編注譯解黃帝內經靈樞, 서울, 여강출판사, 2000
林鎭錫, 黃帝內經概論, 서울, 법인문화사, 2001
類經(中國醫學大系 第 44卷), 中國, 商務印書館, 1990
洪元植, 矯監直譯黃帝內經素問, 전통문화 연구회, 서울, 199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